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세계를 네트워크로 묶는 뉴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세계가 이웃으로 좁아져 가는 지금,
기업은 두뇌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때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

한발 앞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
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
현대전자입니다.

8개 현지법인으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매출의 70%이상을 해외에서 이룩하고 있는 현대전자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8개의 현지법인과 5개의 합작법인을
설립, 반도체 및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술과 제품의 현지화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적 기술의 연구개발기지로 적극 활용,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전자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부문의 세계적인 산주자인
Symbios Logic사를 비롯, 멀티미디어 분야의 독보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TV-COM사, 워스테이션 제조회사 Avi사,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인 HDD로 유명한 Maxtor사등
세계적인 첨단 전자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망 사업참여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자상 1400Km 상공의 48개 소형 인공위성으로 세계 어디서나
음성, 데이터, 무선호출, 위치확인등 개인휴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이동통신사업인 글로벌 스타사업에 참여하는
현대전자는 미국의 로랄, 필립사, 프랑스의 프랑스텔레콤사등
유수의 통신전문회사들과 함께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우주항공관련 첨단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 YUNDAI